

## 밑에 소개한 중금속음악집단의 노래 - '일하라!' (1988)

GRU



(일하라! 일하라! 일하라!  
그러다 곱추 병신이 될지니!)

<https://youtu.be/01M3LWeSFjc>

Работай, работай, работай!

일 하라!, 일 하라!, 일 하라!

И будешь с уродским горбом!

그러다 곱추병신이 될지니!

За долгой и честной работай,

길게, 그리고 정직하게 일 하라!

За долгим и честным трудом,

길고도, 정직한 노동으로써

Ты думаешь, что о нас помнят,

넌 우릴 그들이 이해한다고 보는가,

Кто лавры привык пожинать.

결실을 거머쥐는 것이 익숙한 그들은,

подачкой небрежно покормят,

찌꺼기조차 시원찮게 주면서도

Наввучат – работай опять!

업무를 끼얹는다네 - 일 하라 다시!

Пора отдохнуть, но забота –

월때가 되었는데도 업무는 -

Свести бы с концами концы.

끝엔 좀 줄어들지도 모르니

Поэтому только работай!

그래서 그저 일 하라!

Как деды твои и отцы.

네 애비랑 할애비처럼

А денег всех не заработать

근데 돈은 모두에겐 줄수는 없다

Их больше у тех, кто привык

가진 자들보다 아닌 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Копить их, но так не работать,

돈을 아끼세, 근데 일하지 않겠다면

Сидеть на горбу горемык

곱추병신으로 있게나!

Работай, работай, работай!

일 하라!, 일 하라!, 일 하라!

На хватких и с маленьким лбом,

손아귀로 작은 이마를 쥐고서

За долгой и честной работой

길게, 그리고 정직하게 일 하라!

Ты будешь с уродским горбом

넌 그러다 곱추병신이 될지니!

Ты лучше, умней и красивей

넌 훌륭하고, 총명하고, 아름다울지언데,

Наверное что-то не так!

아마 무엇인가 잘못 된 것이 아닌가!

Коль, пользуясь доброю силой,

선한 힘을 써야한다고 해놓곤,

Плодится дебильный сорняк!

결실은 병신같은 잡초뿐이얼지니!

Я вижу смокинг и китель

내 앞엔 턱시도와 정복(튜닉자켓, 소련군이 정복으로 쓰던거 아시죠? - 주)이 보인다.

И галстука чёрный погон

넥타이와 검은 건장도 보인다.

Среди их бумажной обители,

꺾데기 집들 사이엔

Тиранов прошедших времён.

지나간 시대의 폭군들이.

Знакомый своей недомолвкой

익숙한 자신의 함구와

И парой заученных фраз

외워놓았던 문구의 일부로

Играя на совести ловко,

약삭빨리 양심을 속이며

Ступает на лживый парнас

거짓의 파르나소스(텔포이 신전 있는 곳 - 주)에 한걸음 나아가세.

Освоив закон подчиненья,

순종의 법에 순종하며

Как главный во всём постулат

모든것에 진리로써

Не терпит иных убеждений,

타인의 관념에 관용을 보여선 아니되며

Лелея уставный квадрат

세워진 평방(우상의 의미, 아마 레닌 영묘를 상징하는 표현 - 주)을 빨아제껴라

Сегодняшним видится прошлое

오늘날에서 과거를 볼수 있지만

А будущее разберёт

미래엔 없어지리라

И то, где праведность пошлая

그리고 정의가 천박하다 여기는 이곳과

И в чём тут и личный расчет

이곳에 있는 개인 모두를

Как серость рождается в кителях

정복을 입고 태어나니 얼마나 흐릿한가

И жизнь обезценена как,

삶마저도 의미가 없으리.

В надломленных наших родителях

조각난 우리 대물림 속에선

Я вижу их судеб зигзаг

난 그들 속에서 뒤틀린 운명을 보았네..

Работай, работай, работай!

일하라!, 일하라!, 일하라!

На хватких и с маленьким лбом,

손아귀로 작은 이마를 쥐고서

За долгой и честной работой

길게, 그리고 정직하게 일하라!

Ты будешь с уродским горбом

넌 그러다 곱추병신이 될지니!

제국 말기의 네임드 시인 알렉산드르 블록의 시에서 기반한 가사입니다.

당시에 곱통받던 농민공(알다시피 당시 루시 농민들은 농번기에는 농사짓고 농한기는 도시에서 공장에서 중노동하는 이중노동을 하고 있었습니다.)을 보고 지은 시였는데, 이에 + 권위주의 독-재 및 가진자는 없는 자를 곱추병신(꼬추아님)로 만들때까지 병신을 만들고, 선한 힘을 사용해 세상을 좋게 만들어 나가자라며

좋은 말로 구슬려 놓곤 나온건 기기괴괴 호모소비에티쿠스들.. 등 상당히 비판적인 가사입니다.

하지만 잘 보시면 이건 소련 문제 뿐만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한 계급간의 갈등과 착취에 대한 고뇌입니다. 러시아인들도 만들어졌던 때보다 지금이 더 가사가 와닿는다면 숨겨진 명곡이라고 칭송하고 있죠 -ㅅ-ㄱ

그래도 마지막 3절 부분에 미래엔 이에 종말이 올것이다라는 예언을 하는데, 뭐.. 아직까지는 오진 않은 모양입니다 ㅡㅏ